

사건으로 보는 옛이야기

8주. 문학이 사건이 되다

2차시. 18세기 조선의 검열: '문체반정'

학습목표

1. 조선 후기 '문체반정'이 일어난 정치적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정조가 금지한 '패관소품체'의 개념과 특징을 알 수 있다.



‘문체반정’이란

- 조선 후기 정조가 당시 양반 사이에서 유행하던 ‘패관소품(裨官小品)체’를 배척하고 고문을 부흥시키려했던 문풍 개혁 정책.
- ‘문체를 바르게 되돌려놓음으로써 지식인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미
- 당시에는 ‘기사순정’(其辭醇正, 문장을 순수하고 바르게 하다) 또는 ‘비변귀정’(丕變歸正, 크게 변하여 바름으로 돌아가다)이라고 불렀다.



‘패관소품 (稗官小品)체’란

- ‘패사(稗史), 소품(小品), 소설, 수필 등에 쓰이는 가벼운 문체를 통칭
- 기존 고문 (古文)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고문이 ‘문장과 도학이 하나’라는 도문일치관에 입각한 순정하고 이념적인 문체였다면, 패관소품체는 생활 주변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가볍게 담아내는 새로운 문학양식의 문풍과 문체
- ‘소품(小品)’이라는 용어가 언급되고, 문인들 사이에서 소품문이 쓰이기 시작한 때는 영,정조 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이 패관소품체는 명청소품문의 영향이 크며, 특히 경화세족(京華世族)* 문사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 패관소품을 쓴 주요 작가로는 박지원(朴趾源), 이옥(李鐺) 홍대용, 이덕무, 박제가 등 진보적 문인들은 물론이고 서울과 그 주변 지역 문사들에게 급속도로 유행

* 경화사(세)족: 18세기 이후 변화한 한양(서울)과 근교에 거주하는 사족을 지칭하는 용어, 경화사족과 지방 사족과는 격차가 뚜렷함



‘패관소품 (稗官小品)체’란

- 조선 후기 문풍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온 이 문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재도지문(載道之文)을 추구하던 이념 중심의 시대와는 달리, 생활 주변 잡다한 것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상상력을 부여하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감성, 개성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점. 즉 문학 자체의 독자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한 때문.
- 문인들이 자신들의 소소한 개인적 감정과 개성들에 집중하게 되면 이는 상대적으로 당대 성리학자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진리인 ‘도’를 추구하는 이지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의 고문의 경향과 멀어지게 됨
- 이러한 문풍의 변화가 좀 더 심각하게 부각된 것은 문체가 문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의 사유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



‘패관소품 (稗官小品)체’란

- 이러한 문체의 변화는 그간에 금기 시 되었던 자유 연애, 자연과학적 사유, 자유분방함, 일탈에 대한 긍정 등 기존의 문학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 이에 따르는 자유로운 사고는 성리학의 고전정신과 멀어져 결국 지식인들의 의식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 판단함
- 그런 점에서 이 새로운 세계의 묘사는 당대의 보수적인 고문 창작가나 정치가들에게는 체재를 위협하는 불온한 문체로 받아들여졌던 것

'패관소품 (稗官小品)체'란

소품문의 내용적 특징

- 과문(科文)을 놓고 보더라도 패관 소품(稗官小品)의 문체를 사람들이 모두 모방하여 경전 가운데 늘상 접하여 빠뜨릴 수 없는 의미들은 소용없는 것으로 전락하였다.
내용이 빈약하고 기교만 부려 전연 옛사람의 체취가 없고, 조급하고 경박하여 평온한 세상의 문체 같지 않다.
- 『조선왕조실록』, 정조 16년(1792) 10월 19일 갑신
- 문체는 난삽하고 글씨는 바르지 못하며 몸은 선왕의 행실을 본받지 않고 입은 성현들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
- 『조선왕조실록』, 정조 23년(1799) 6월 4일 신묘
- 그 폐단이 드디어 드디어 성인을 비난하고 결전을 반대하여 인륜을 멸시하고 의(義)를 어그러뜨린 뒤에야 그만둘 것이다.
- 『홍재전서』, 권 164, 장 22



‘패관소품 (稗官小品)체’란

“사람들은 소품을 한낱 글에 불과한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식견이 얇으면서 좀 재주를 가진 젊은이들이 평범한 것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소품을 좋아해 빠지는 것이 마치 음란한 음악이나 부정한 여색에 점점 빠져드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폐단은 성인을 비난하고 도리에 반하고 인륜을 무시하고 의리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게 된다. 드러난 사학보다 소품이 더 근원적이고, 그 영향은 더 광범하고 그 폐해는 더 심각하다.”

- 『홍재전서』, 권 164, <일득록 4>



‘패관소품 (稗官小品)체’란

- 이러한 패관소품체는 중국의 4대 기서인 『서유기』·『수호지』·『삼국지연의』·『금병매』 등 당시 청나라에서 들어온 명청 시대의 소품문과 소설 등을 탐독하는 문인들이 새로운 문체를 실험하면서 빠르게 확산.
- 대표적인 작품으로 박지원의 중국여행 체험기인 <열하일기>를 들 수 있다.
그의 글은 다채로운 표현양식이 특징인 그만의 서체, 즉 ‘연암체’라고 불리는 독특한 문체를 구사해 당시 화제를 모았다.
- 연암체의 특징은 소설식 문체와 해학적인 표현에 있었는데, 정통 고문에 구애되지 않고, 패사소품체라고 불리던 소설식의 표현방법을 과감히 도입해 쓰고, 현실의 생동하는 모습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묘사했다. 기존의 관습적으로 사용돼 왔던 용어인 시어의 사용이나 고답적인 용사를 쓰지 않았던 것이다.

'문체반정'의 시발

진산 사거

- 정조 15년(1791, 신해년) 호남 진산군에서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운 사건
“제사를 폐지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위패를 불태우고 조문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그 부모의 시신을 내버려...”(“(정조실록 1791년 10월23일)
- 진산사건의 당사자인 윤지충과 권상연 등이 처형되고 서양 서적 소장이 금지
- 이승훈을 삭직하고 권일신을 위리안치
- 정조는 문제 원인을 명말 청초의 문집, 패관잡기, 서학에서 찾음



‘문체반정’의 시발-정조의 대책

- 1792년(정조 16) 10월 정조가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중국에 가는 박종악(朴宗岳)과 대사성 김방행(金方行)에게 패관소품은 물론 경서, 역사서도 일절 가져오지 말 것”을 명하였다
- 김방행에게는 “성균관 시험 답안지 가운데 조금이라도 패관잡기에 관련된 답이 있으면 해당자를 찾아 처벌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조실록』 16년 10월 19일



‘정조의 대책’

(사례1) 성균관 유생 이옥(李錡)은 답안지를 소설체로 썼다는 이유로 대과 일등에서 꼴찌로 밀려나...

"성균관 시험의 시험지 중에 만일 조금이라도 패관 잡기에 관련되는 답이 있으면 비록 전편이 주옥 같을지라도 하고(下考)로 처리하고 이어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여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조금도 용서가 없어야 할 것이다. ..(중략)..엇그제 유생 이옥(李錡)의 응제(應製) 글귀들은 순전히 소설체를 사용하고 있었으니 선비들의 습성에 매우 놀랐다. 지금 현재 동지성균관사로 하여금 일과(日課)로 사륙문(四六文) 만 50수를 짓게 하여 낡은 문체를 완전히 고친 뒤에야 과거에 응시하게 하도록 하였다.

-『정조실록』 16년 10월 19일



‘정조의 대책’

(사례 2) 경화세족 명문가 출신 이상황(李相瓚)·김조순(金祖淳)에게 반성문

이상황, 김조순은 1787년 예문관에서 숙직을 서면서 당송시대의 통속소설이었던 <평산냉연(平山冷燕)>을 보다가 들키는데, 정조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소설들을모두 불태워버리라고 명함. 이상황은 ‘두 번 다시 소설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반성문을 썼고, 김조순은 동지사의 서장관이라는 신분으로 중국으로 가고 있었음에도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는 반성문을 써내어야 했다.



‘정조의 대책’

(사례 3) 경화세족 명문가 출신 남공철을 견책

“남공철(南公轍)의 대책(對策) 중에도 소품을 인용한 몇 구절이 있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가. 나도 문청(文淸)에게서 배웠지만 지성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주었기에 비로소 글을 짓는 방법을 알았다.

...(중략).....그가 비록 대궐에 들더라도 감히 경연에 오르지는 못할 것이며 집에 있으면서도 무슨 낮으로 가묘(家廟)를 배알하겠는가. 공철의 지제교 직함을 우선 떼도록 하라.”-『정조실록』 16년 10월 19일

(사례 4)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에게도 반성문을 쓰게 함

개혁 군주 정조가 '문체반정'을 편 이유

1. 자유로운 문체에 대항해 성리학의 고전 정신을 지키기 위해(문학적 배경)
 2. 탕평책의 일환(지배세력인 노론의 남인 공격을 막기 위해) (정치적 성격)
 3. 소설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과 사도세자의 소설 애호
- 정조는 명말청초의 문집과 패관소설류, 잡서의 영향으로 당대 양반 사회에서 패관 문체가 대유행하자, 이것이 조선의 이데올로기인 유교를 더럽힌다고 우려..이는 문체반정의 본질을 “성리학에 어긋나는 이단적 사유를 색출한다는 것”에 둔 것으로, 당시로서는 ‘책과 사상’에 대한 검열
 - 정조는 그가 다스리는 세상이 가장 보수적인 정통주자학에 의해 완벽하게 작동하기를 원했던 사람

QUIZ로 정리하기

1. 문체반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은 것은 0, 틀린 것은 X 하시오.
 - ① 영정조 연간에 명청의 소품류에서 영향을 받았다.
 - ②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당시 소품체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정조는 박지원을 삭직했다.
 - ③ 이옥은 문체반정의 최대 피해자로, 결국 반성문을 쓰고 자신의 문체를 바꿨다.
 - ④ 패관소품체는 당시 고문체와는 다르게 자유로운 감정과 감성을 담았다.
 - ⑤ 당대의 보수적인 고문 창작가나 정치가들에게 '소품문'은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